

경제포커스

■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

이병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

이병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yurifin@kocca.or.kr

I. 들어가는 글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크게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 가능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이 주요한 국정 과제로 등장하고 전국의 주요 도시가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육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단위의 혁신자원 조사를 통해 향후 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관련 수립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셋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 로드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성공가능성 높은 문화산업 육성 지원 기반 마련
-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문화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맞춤화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박사
- 한국디지털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지리학연구, 2005.9) 등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공간적 차원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이 중 서울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핵심잠재력 등을 살펴보고 주요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간략히 정리함
- 내용적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을 광의의 문화산업과 협의의 문화산업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협의의 문화산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04 문화산업통계」에서 제시된 10대 문화산업으로 정의를 1차 기준으로 삼음
 - 최종적으로 ① 출판, ② 만화, ③ 음악, ④ 게임, ⑤ 영화, ⑥ 애니메이션, ⑦ 방송, ⑧ 광고, ⑨ 캐릭터, ⑩ 인터넷교육콘텐츠/모바일콘텐츠 업종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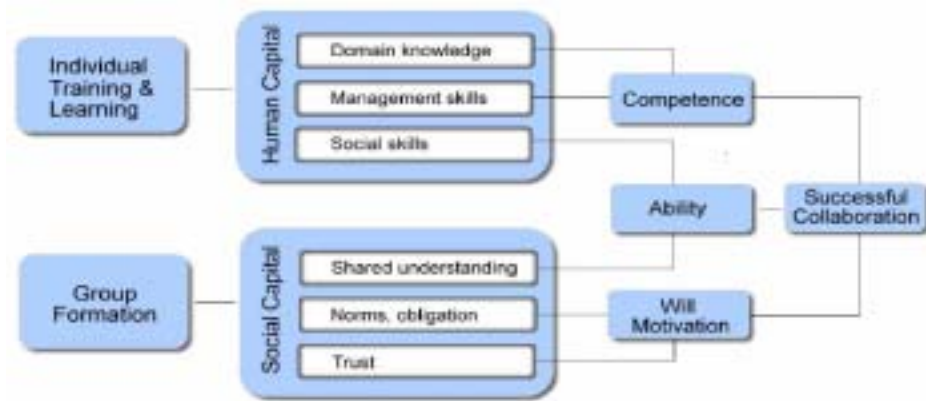
II. 클러스터 지형도의 분석

클러스터의 개념

- 현대의 지역이론에서는 지식의 창출·확산·사용을 통한 혁신을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간주됨
 - 혁신은 지역·국가·전 세계 차원에서 개인·기업·여타 지식기관들 간의 복잡한 상호교류의 결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혁신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 가치사슬(value-chain)에 있어 수직적 상호의존성과, 기업과 지식기관 간의 수평적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혁신을 유발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클러스터는 필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통상 국가전체 차원의 혁신시스템의 축소형(reduced-form NIS)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클러스터(cluster)란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기업지원기관이 공간적으로 집적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집합체로서 국지적(local) 혁신

거점을 의미하며, 지역혁신체계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미시 경제적 사업 환경(법·제도적 틀)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정책을 의미함(남기범, 2004)

- 따라서 클러스터 정책이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혁신주체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지원하는 거버넌스와 지역혁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함



출처: IKED(2004)

〈그림 1〉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의 결합

- 즉 클러스터는 위의 그림과 같이 상호 이해, 공동 규범, 신뢰 등의 사회 자본의 형성에서 시작됨
 - 클러스터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과 이익의 증대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클러스터 형성의 근간이 됨
 -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구성원간의 경쟁과 협력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사회 자본과 인적 자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요소의 상호 작용이 필수적임

클러스터 지형도 분석

- 최근 클러스터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 클러스터 분석은 흔히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Cluster Mapping)’으로 불림
- 이러한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은 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대학 연구소 또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수행되고 있음
- 특히,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이 지역의 혁신역량과 산업발전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기관 차원에서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주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표 1〉 클러스터 맵핑 분석의 주요 선행 연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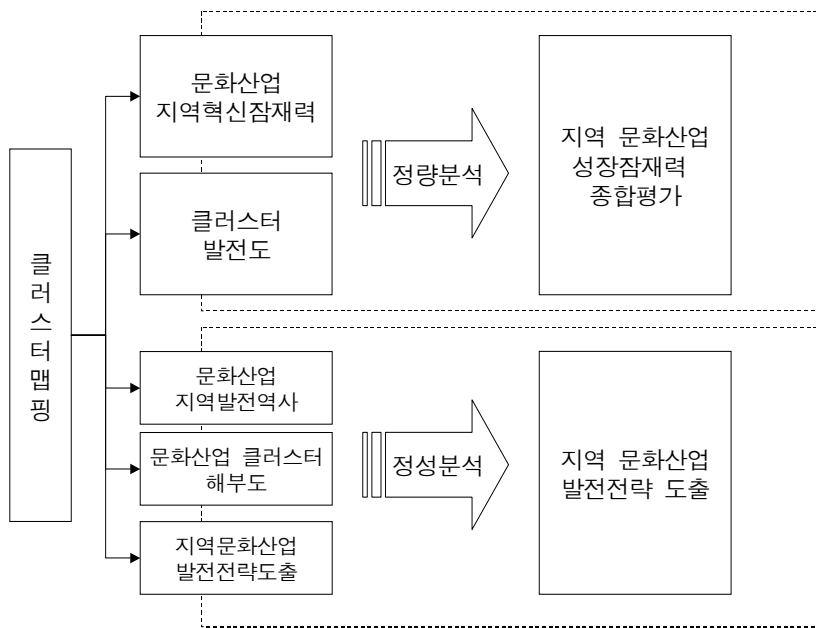
지역	산업	보고서명	기관
영국 북동지역	창작산업 ¹⁾ (문화산업)	Culture Cluster Mapping and Analysis	Center for urban & regional development studies(2001) Univ. of Newcastle Upon Tyne
호주 전지역	창작산업 (문화산업)	Creative Industries Cluster Study I,II,III	DCITA(2004), Australia
호주 퀸즈랜드	창작산업 (문화산업)	Queensland's Creative Industries Cluster Mapping and Value Chain Analysis	Creative Industr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Centre(CIRAC),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영국 전지역	전산업	Business Clusters in the UK - A First Assessment	Dept. of Trade and Industry (2001)
영국 Yorkshire & Humber	생명과학	Yorkshire & Humber Bioscience Cluster Mapping	ANGLE Technology Ltd.(2002)
영국 West Midlands	의료기술	Advantage West Midlands Medical Technologies Cluster Mapping & Analysis	ANGLE Technology Ltd.(2002)
영국 West Midlands	항공우주 기술	West Midlands Aerospace Cluster Mapping Project: Aerospace Supply Chains in the West Midlands	UK Research Partnership Ltd. (2002)
미국 주요 지역	지역 전략 산업	Clusters of Innovation Initiative (Atlanta, Pttsburgh, Research Triangle, Sand Diego, Wichita)	M. Porter Council on Competitiveness(2002)
미국 전지역	전산업	Cluster Mapping Project	Institute for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의 분석틀

- 선행연구와 연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의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위한 분석틀은 다음 몇 단계로 나누어 구상이 가능
- 1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산업구조와 문화산업 발전과정 및 지역산업구조와 문화산업 간의 연계가능성 등에 관해 기술
 - 도시의 발전과정 및 지역이 해당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특화하고자 한 배경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계획 등에 관해 지역 관련 기관의 심층면접과 각종 문헌 자료를 기초로 파악하여 기술하게 됨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의 2단계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혁신잠재력에 대해 각종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시도함
 - 지역 문화산업 혁신잠재력은 지역의 혁신환경, 혁신자원의 분포, 혁신 활동 및 성과라는 지역 혁신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관련 대리지표를 수합하여 지수화된 결과를 제시함
 -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문화산업의 혁신프로세스 전 과정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 있고 향후 지역의 문화산업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3단계에서는 지방문화 산업클러스터 조성(협업) 지역에서 유치업종 중심 클러스터 발전가능성과 현황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결과 및 지역 문화산업지원센터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 지역 문화산업 혁신 잠재력 분석이 지역 전체의 포괄적 문화산업 역량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반해, 클러스터 발전도 분석은 유치업종을 중심으로 업체 현황 및 네트워크 그리고 클러스터사업추진도 등을 분석함
- 4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해부도 중심으로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보완하고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질적 속성을 각 혁신주체별, 주체 간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정밀하게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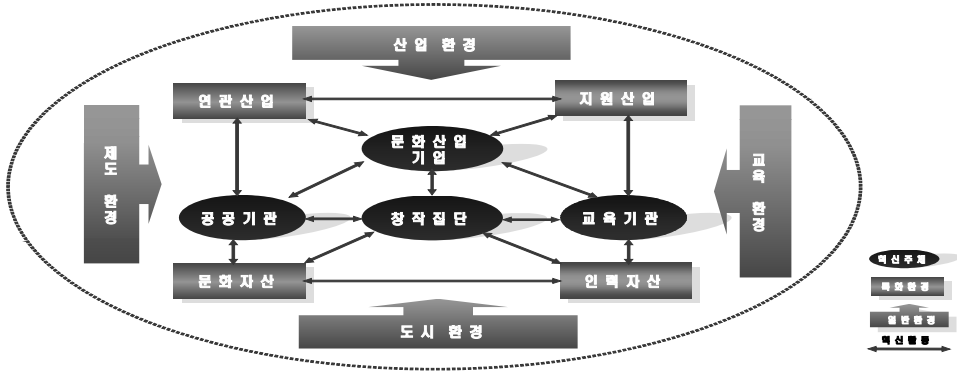
1) 영국,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호주 등에서는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이라는 용어 대신 창작 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두 용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작 산업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기반 하는 콘텐츠 산업을 통칭하며, 기존의 문화산업의 개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용어 사용과 관련된 논의는(이병민, 2004)를 참조

-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5단계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혁신시스템 및 경쟁력 종합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전체 분석결과 중 지역혁신 잠재력 조사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명함
- 특히 1단계 각 지역의 발전역사와 지역단위의 4단계의 클러스터 해부도는 지역내 관련기관과의 관계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와 정성적 자료를 토대로 상이한 사례로 나타나게 됨



<그림 2>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의 분석 체계

- 이 중 클러스터 해부도의 경우 지역의 문화산업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 제도, 교육, 도시 환경등과 산·학·관·연의 현황을 정밀하게 정리



〈그림 3〉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해부도 관련 기본 모형

III.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분석의 주요 결과

전국 10대 문화산업 기업 지역별·업종별 분포

<표 2> 10대 문화산업 기업의 업종별·지역별 분포(실태조사 결과)

지역	소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둘 이상 업종
서울	4,374	1,439	27	297	525	477	129	402	707	100	139	132
부산	243	4	0	8	35	27	7	21	50	12	56	23
대구	132	0	0	6	13	7	1	13	42	2	24	24
인천	50	2	2	3	12	6	4	11	2	5	2	1
광주	111	5	0	4	8	11	1	17	41	1	5	18
대전	168	23	0	6	21	9	3	27	43	0	18	18
울산	15	0	0	0	0	2	0	6	3	1	0	3
경기	381	97	10	32	62	43	23	41	13	30	7	23
강원	63	4	0	2	3	8	2	33	3	0	0	8
충북	99	3	0	3	6	3	1	36	3	2	32	10
충남	28	3	0	0	2	4	0	15	1	1	0	2
전북	67	5	1	0	6	1	2	12	21	0	8	11
전남	41	0	0	0	0	1	0	34	2	0	0	4
경북	58	4	0	2	2	3	0	36	3	0	5	3
경남	89	0	0	1	2	7	0	58	14	0	2	5
제주	47	3	1	1	1	3	0	10	11	8	5	4
합계	5,966	1,592	41	365	698	612	173	772	959	162	303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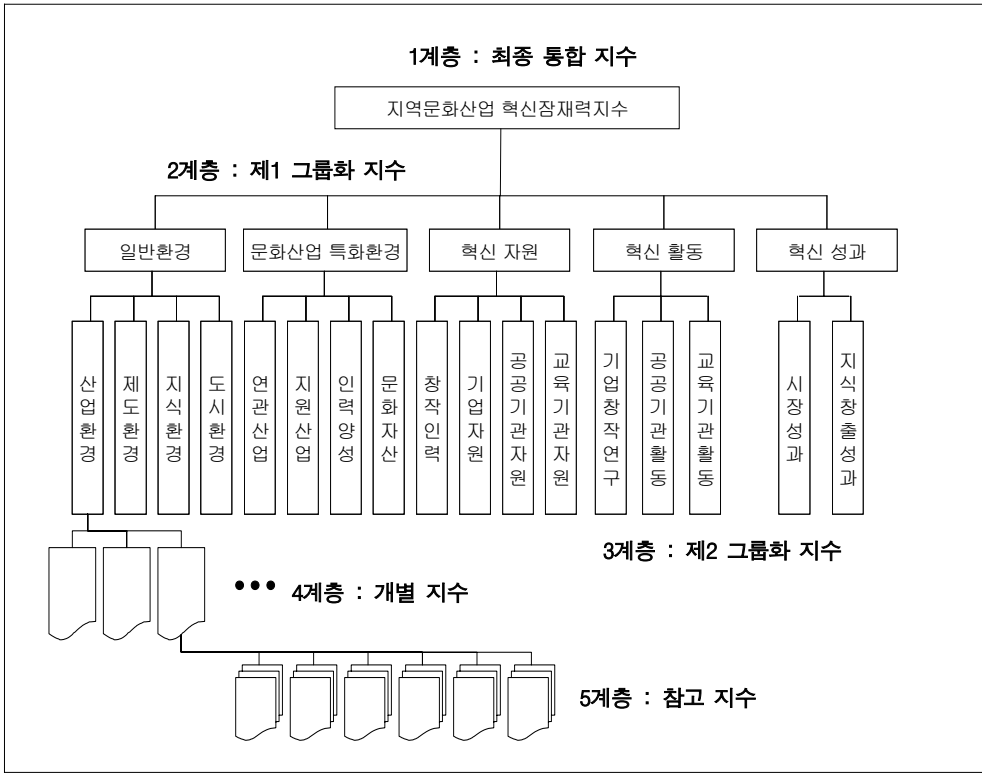
주: 인터넷 콘텐츠는 교육용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한정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2005.11.)

- 10대 문화산업 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나타남
 - 총 5,966개의 전국 기업중 4,374개를 기록하며 전체 대비 73.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시도별 혁신잠재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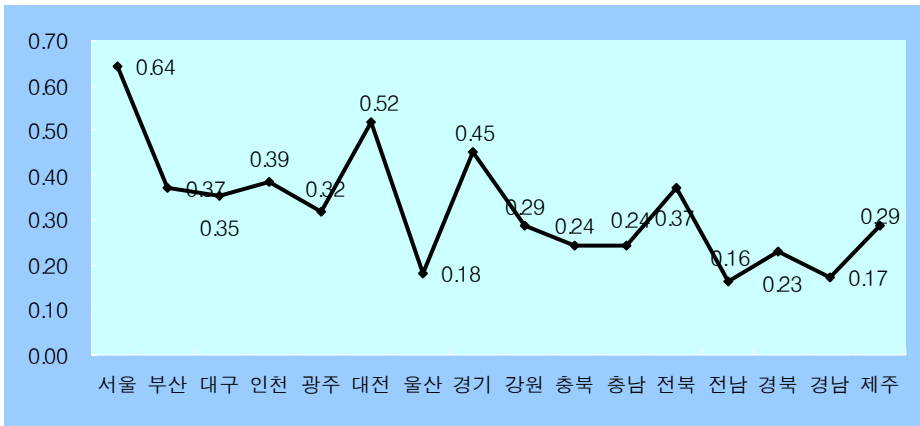
- 클러스터 지형도 분석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화산업 혁신잠재력지수(Regional Innovation Potential Index; RIPI)의 경우 문화산업 분야에서 지역이 가지는 성장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최종 산출2)
 - 지역의 일반환경(산업환경, 제도환경, 지식환경, 도시환경), 문화산업 특화환경(연관산업, 지원산업, 인력양성, 문화자산), 혁신자원(창작인력, 교육기관, 기업, 공공자원), 혁신활동(기업창작 및 연구활동, 공공기관, 교육기관 활동 등), 혁신성과 등을 망라, 정량적인 통계자료들을 취합, 지수화함(<그림 4> 참조)
 - 관련하여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 지역기업벤처 수, 재정자립도, 논문게재건 수 등 일반적인 잠재력 관련 자료이외에 문화산업 관련 업체, 종사자, 연관산업 통계, 학생수, 전문인력 통계 등과 함께, R&D 비용, 관련예산, 매출, 수출, 저작권 등 모든 자료를 총망라함
 - 절대적인 값을 취합 정리하여 지역의 규모(인구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대학생 수 등)로 나누어 계산한 상대지수의 경우 지역 내에서 타산업과 비교하여 문화산업이 갖는 경쟁력의 크기를 나타내게 됨
 - 취합결과에 따르면 서울, 대전, 경기의 혁신잠재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서울의 경우 혁신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높은 값을 보임(<그림 5> 참조)

2) 통합 지수 산출에는 전문가 가중치 부여 방법(budget alloc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최종 통합지수인 지역혁신잠재력지수(RIPI)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출됨 $RIPI = \sum_{q=1}^Q W_q I_q$, ($0 \leq W_q \leq 1$, $\sum_{q=1}^Q W_q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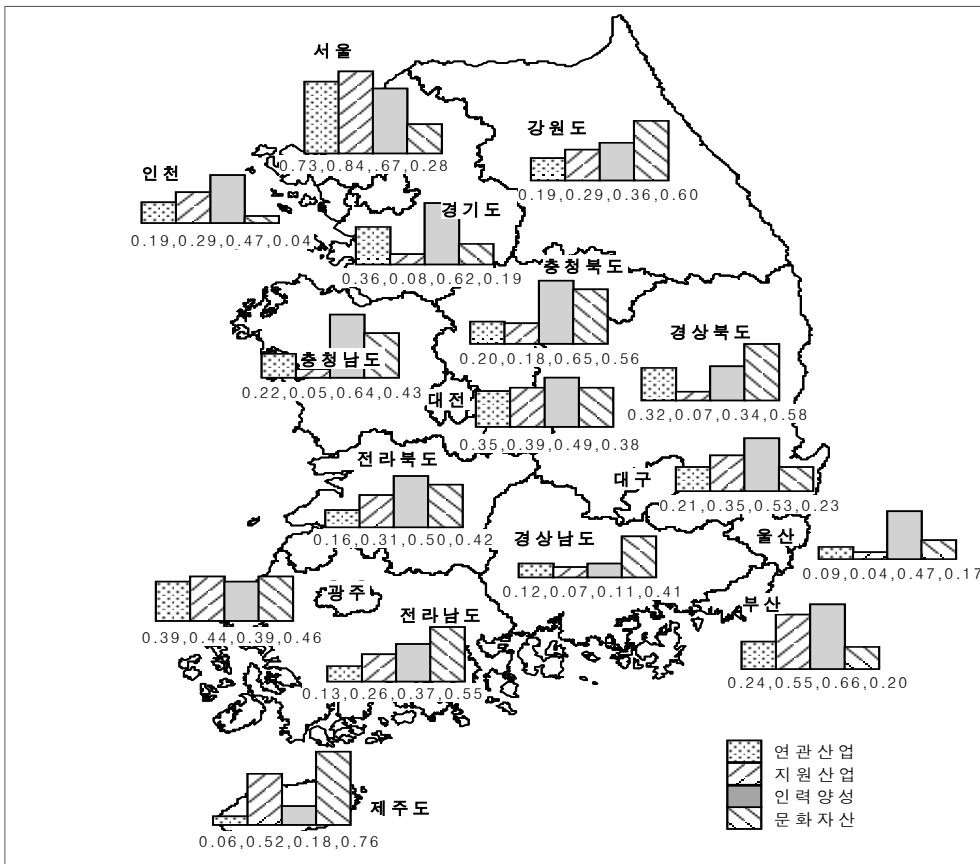


<그림 4> 혁신잠재력 지수 도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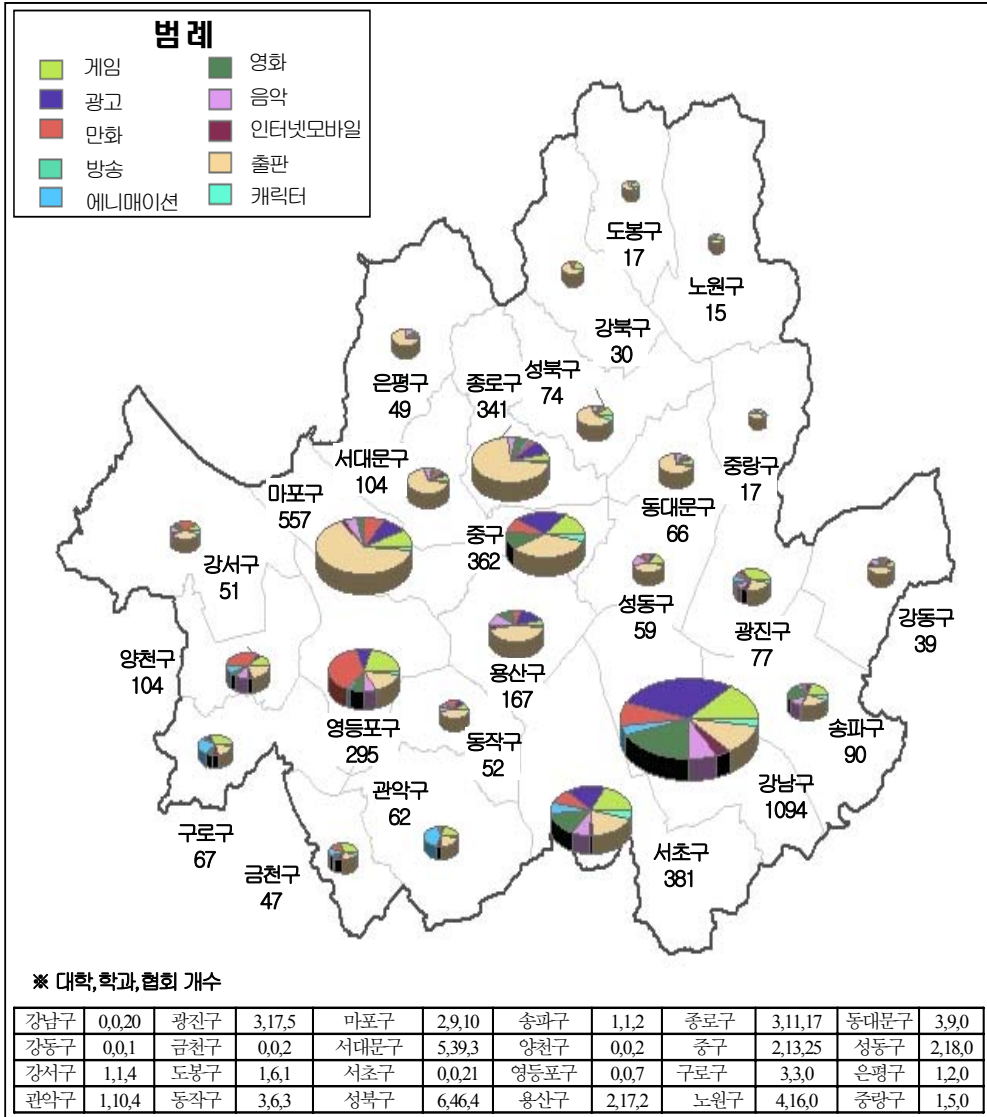
- 혁신잠재력 관련 자료 중 가장 중요한 문화산업 특화환경은 16개 지역에서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짐
 - 크게 연관산업, 지원산업, 인력양성, 문화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부지표들을 조사(<그림 6> 참조)
 - 문화산업과 연관 산업을 선정하여 종사 수를 조사하였고, 금융업 및 유통물류업체 종사자들을 조사
 - 인력양성부문은 문화산업과 연관된 고등학생 수 와 대학생 수, 문화자산은 문화유산 및 문화공간 수와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등을 조사함
 - 서울지역은 모든 부분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원산업과 연관산업의 발전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특화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 이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지역내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5〉 문화산업 혁신잠재력 종합 상대지수



〈그림 6〉 문화산업 특화환경 상대지수



주: 최종적 둘 이상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체로 판명된 경우, 초기 잠정 리스트에 기록된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

<그림 7> 서울시 문화산업 기업/대학/협회 분포 현황

○ 관련된 세부 자료 중 서울시 10대 문화산업의 기업, 대학, 협회의 현황은 <그림 7> 과 같이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강남구와 마포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기업을 제외한 대학, 학과, 협회의 경우만을 볼 경우에는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주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서울의 경우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핵심잠재력지수의 산출에 있어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일반환경 뿐 아니라, 문화산업을 위한 특화환경 여건에 우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문화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기업활동 및 성과도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
 - 관련 인력의 경우 문화산업 대표이사 출신지역이 서울인 경우는 설문응답의 64.7%, 서울소재대학출신대표이사 비율은 80.1% 등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에 있어 있어서도 98.3%의 서울 내 자체조달비율이 나타나며, 만족도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분야 또한 금융지원의 분야임
 - 다만 혁신활동에 있어 최근 문화산업 관련 누리사업 예산 및 관련 인력의 지역집중 등으로 교육기관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클러스터 지형도 종합의 경우는 지역별로 단계별 평가를 종합하게 됨
 - 분석의 틀에 따라 1단계 역사와 환경, 2단계 혁신 잠재력, 3단계 클러스터 발전도, 4단계 클러스터 해부도, 5단계 종합 및 평가로 종합 요약함
 - 실제 지역별 분석에서는 단계별 기초자료와 참고자료를 총 망라하여 전체적인 종합적 지형도를 완성하게 됨
 - 문화인프라 환경의 1단계와 다양한 정량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핵심잠재력 분석, 3단계의 인터뷰 자료 등을 거쳐 현재의 발전도를 파악하고, 각 기관과의 사회적 관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함
 - 예를 들어 서울을 제외한 8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업체 현황 등 서울과 비교 시 상대적인 열위조건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미약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보다 산업적인 장기적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IV.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방향

- 클러스터 지형도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몇 가지 함의점과 함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정책과제의 수립 방향을 모색해봄

장기적 산업기반 조성으로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발전 목표의 다원화

- 클러스터 지형도 분석을 통해 본 결과는 문화산업이 단기간에 지역의 ‘떡거리’로서 지역총생산액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
 - 실제로 지역에서 유치업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기업은 10~20개 미만으로 문화산업(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 육성을 통한 단기간의 ‘산업적’ 성장을 기대하는 경우 지역 문화산업 육성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움
 - 2001년부터 시작된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작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만 4년의 사업기간으로 산업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름
- 그러므로 지역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절실함
 - 지역의 현황과 잠재력 등 종합적 특성 고려, 유형별 차별화된 발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지역 현황과 발전전략에 따른 자발적 특성화 유도

- 초기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신청 당시 문화산업의 기반-기본적 수준의 업체 수 또는 선도기업 등-이 존재하는 지역은 소수였으므로, 상당수 지역에서는 ‘계획’ 차원의 육성계획과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선정

-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성 신청 당시 선택한 유
치업종과는 다소 상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최초 조성사업 신청 당시 선택한 유치업종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방에서 스스로 선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 현재 국내 문화산업은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클러스터 맵하기, 나아가 산업형성
초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지역은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업종별 국지화지수 역시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
영함

<표 3> 10대 문화산업의 국지화지수

지역	소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합계	6,285	1,664	87	383	732	660	214	897	1064	196	388
서울	4,511	1,489	66	305	545	506	144	450	726	107	173
부산	273	5	0	9	35	28	13	33	65	21	64
대구	160	2	0	6	17	10	5	25	57	5	33
인천	51	3	2	3	12	6	4	11	2	5	3
광주	131	7	0	6	8	13	5	25	53	5	9
대전	188	24	0	8	24	15	5	38	52	1	21
울산	18	0	0	0	1	2	0	8	5	1	1
경기	405	106	16	35	66	48	27	42	17	35	13
강원	75	4	0	2	4	8	4	42	9	0	2
충북	111	5	1	3	6	4	3	41	9	4	35
충남	30	3	0	0	2	4	0	17	2	1	1
전북	78	6	1	0	6	1	4	18	29	2	11
전남	46	0	0	1	0	1	0	37	4	0	3
경북	61	5	0	2	2	3	0	38	4	0	7
경남	95	0	0	2	3	8	0	61	16	0	5
제주	52	5	1	1	1	3	0	11	14	9	7
국지화지수		0.18	0.18	0.11	0.07	0.06	0.11	0.24	0.12	0.24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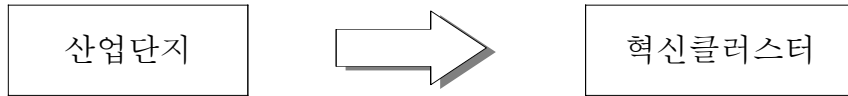
주: 업종별 업체 수에서 둘 이상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는 중복 계산한 결과임
(중복을 배제한 경우 전체 업체 수는 5,966개임)

업종별 국지화지수(Localization Index)=각 지역에 대해 '(i지역 j업종 종사자 수 / j업종의 전국 종사
자 수)-(i지역 10대 문화산업 종사자 수/전국 10대 문화산업 종사자 수)'를 계산한 다음, (+)의 값
만을 합한 결과임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태 조사(2005.11.)

산업단지 건설에서 지구단위의 클러스터 사업 전개

- 센터의 사업비 집행은 물리적 인프라, 전문 인적자원 구성, 문화산업 지원사업비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해 고르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지방문화산업단지 사업은 예산 성격상 ‘자본재’ 로만 지출이 가능하며, 모든 지역에서 단지 조성, 건물(스튜디오) 신축, 장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소모하여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일차적 목적을 둠
 - 이러한 상황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물리적 인프라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 ‘클러스터’ 를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됨
 - 특히 향후 거대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조성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형 지역 문화산업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지역에서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사업비와 인적자원 확충이 더욱 절실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구단위의 현실적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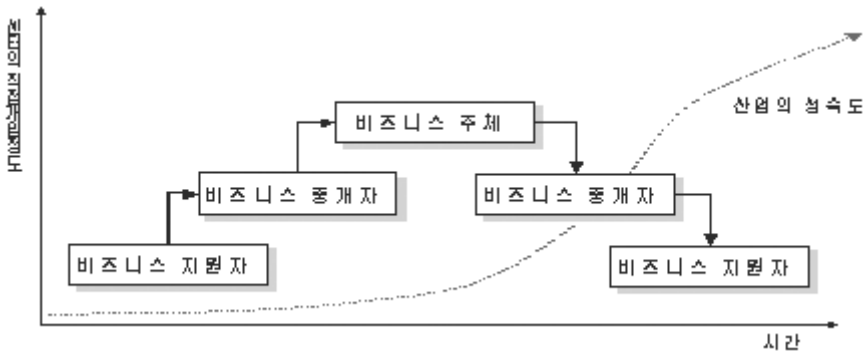


〈그림 8〉 산업단지에서 지구단위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방향 전환

- 이를 위해 도시발전전략에서 ‘클러스터(사업이 아닌 학술적 의미)’ 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위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우선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중소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둘 이상의 클러스터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지역 문화산업 추진주체간 거버넌스 체제의 정비 및 지원센터의 자립화 지원

- 클러스터 분석 결과 현재 지방의 문화산업 추진주체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주력 업종 지원기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는 문화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주도하는 기관임
 -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산업 전체를 아우르고 큰 틀 하에서 각종 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센터가 특정 업종에만 중점을 두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역할 조정이 필요함
- 단계적으로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공공부문 지원센터의 역할을 적극적 개입 정도에 따라 세 단계-비즈니스 지원자, 비즈니스 중개자, 비즈니스 주체-로 구분할 때, 아직 상당수의 센터는 비즈니스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비즈니스 중개자 또는 비즈니스 주체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 및 업무가 진행 중임
 - 현시점에서 지역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단순한 지원 업무로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판매 과정에 개입하여 성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이 시급함
 - 센터의 역량 증진 및 역할 확대는 향후 국고 지원 종료 시 또는 클러스터사업 졸업 이후 센터의 자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따라서 기업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지역에 최소한의 산업이 형성된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축소하고 보다 큰 틀의 제도적 지원 주체로서 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진화 경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위한 문화산업 혁신공동체의 구성 및 추진

-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안정적 성장은 유사한 사업 분야 및 협력 가능한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역 간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참여 지역 간 자발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개별 지역의 특화도 심화와 함께 지역 간 보완적 협업 관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역의 문화산업 업체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창업 또는 초기성장 단계이므로 자발적인 지역 간 협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 자발적인 협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수는 서울 지역의 업체와 협력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서울 기업과 지방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은 적극 지원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서울이 아닌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지역간의 협력은 두 가지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선 중앙 부처 및 지원기관에서 사업의 형태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방식으로는 유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업체·학계 전문가·지역지원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의 결성을 지원하여 이들 간의 자발적 학습과 이를 통한 아이디어의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음(이러한 모임은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에서 모두 중요함)

- 모임의 구성원은 3~4인에서 10인 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중앙 부처는 모임의 목적과 기여도에 따라 연간 최소 모임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모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지역 문화산업 자원현황 조사의 정례화·단일화

- 현재 문화산업통계 등 전국 차원의 자원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서울 중심의 조사임으로, 지역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문화산업통계에서 지역별 조사부문을 강화하거나 또는 별도의 지역문화산업 통계를 통해 지역별 자원 현황 파악 및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정기적으로 클러스터 지형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여 연차별 자료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한 정책개발의 기반을 삼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남기범, “클러스터 정책실패의 교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2004, pp.407-432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2004
- 이병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지』, 14(5), 2004, pp.55-66
- 이병민,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지리학연구』, 13(9), 2005, pp.399-420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산업 특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 2006
- 『The Cluster Policies Whitebook』, IKED(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Knowledge Economy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04